

빌립보서: 함께 읽는 성경 공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려움 속의 기쁨과 공동생활을 어떻게 빚어 가나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중에도 기쁨을 공동체의 복음 동역과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높아지심이 연합의 부르심을 형성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바울의 추구, 동역자들의 섬김, 빌립보 신자들의 물질적 지원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이 공부는 기존의 일곱 차례 읽기 과정을 따르며, 익숙한 구절을 동기 부여의 구호로 취급하지 않고 편지의 흐름 안에 둡니다.

편지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읽기

바울은 사역 초기에 동역을 시작한 신자들에게 죄수로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공동체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투옥 장소로 로마, 에베소, 가이사랴가 제안되지만 편지 자체는 도시를 밝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직접 저작은 널리 받아들여지며, 일부 학자는 현재 형태가 별개의 편지들을 결합한 것인지 논의합니다. 겸손과 신실함에 관한 메시지는 모든 연대기적 질문을 해결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참조: 빌 1:1-30 · 빌 4:10-23

출처: primary, brown

논증 따라가기

첫 감사는 투옥에 관한 증언과 합당하게 함께 살라는 호소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내어주심이 모범을 제공하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를 삶으로 보여 줍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의 중심적인 추구라고 설명한 뒤, 화해, 기도, 자족, 나눔을 다룹니다. 기쁨을 위해 고통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능력은 모든 개인적 야망의 성공을 보장하기보다 부족함과 풍요 속에서의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참조: 빌 2:1-30 · 빌 3:1 - 빌 4:23

출처: primary

감사와 동역

빌 1:1-11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을 애정으로 기억하고 복음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감정의 강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사랑을 분별력과 연결합니다. 동역에는 공동의 목적과 그리스도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인내로 형성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생각해 보기

공동체의 사랑은 어떻게 더 관대해질 뿐 아니라 더 분별력 있게 자랄 수 있나요?

어려움 속의 소망

빌 1:12-30

투옥은 바울의 이동을 제한하지만 증언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성찰은 여전히 공동체의 성장과 연결됩니다. 그는 고난 자체를 선택했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고난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신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서도록 부릅니다.

생각해 보기

자신의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을 위해 무엇을 바라나요?

예수님의 모범

빌 2:1-11

경쟁에 반대하는 호소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음, 높아지심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적 기독교 해석은 이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참된 인성에 연속하여 읽습니다. 겸손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행동의 모범으로 삼습니다.

생각해 보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실제적인 호소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얼굴과 이름을 가진 믿음

빌 2:12-30

신자들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들의 적극적인 순종을 뒷받침합니다. 이어 디모데의 관심과 에바브로디도의 값비싼 섬김이 그 순종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심각한 병은 믿음 부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연민과 안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대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누구의 신실한 섬김이 인정과 실제적인 돌봄을 함께 받아야 하나요?

무엇을 추구할 가치가 있나요?

빌 3:1-21

바울은 한때 자신감의 근거였던 자격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 위에 둡니다. 그의 소망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미 완전한 성숙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결정적인 방향 전환과 계속되는 추구를 결합하여 영적 자랑 없이 인내할 여지를 줍니다.

생각해 보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삶의 중심 목표가 된다면 어떤 지위의 근거가 여러분을 덜 지배하게 될까요?

화해와 평화

빌 4:1-9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일치를 향해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로 언급됩니다. 기도와 훈련된 생각은 이러한 공동체적 책임과 나란히 놓입니다. 평화는 고통을 숨기거나 필요한 돌봄을 거부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본문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초대합니다.

생각해 보기

다른 사람은 의견 차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화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자족과 나눔

빌 4:10-23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의 물질적 지원에 감사하면서 부족함과 풍요 모두에서의 자족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확신은 변하는 상황을 견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물은 지속적인 동역을 표현하며, 그의 감사는 관대하게 주는 일과 존엄하게 받는 일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하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기

바울의 응답에서 자족과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떻게 어울리나요?

출처

- [primary] Philippians; primary biblical text. Reading references only; no Bible text is reproduced in this resource. <https://ebible.org/eng-web/PHP.htm>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20. Background and scholarly discussion; not an endorsement of every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study-philippians>